

장로 임기제와 교회 갱신*

Terminal Service and Church Renewal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 교수

I. 오만한 지도자, 왜곡된 신앙 형태

몇 개월 전이었다. 어느 일본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분은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딸을 한국에 데려와서 일본인 학교에 보내면서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한국에 올 때는 한국 교회의 장점을 배워 일본교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3년 남짓 한국에 살면서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토로하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무례하고 신분과 지위에 민감하며 지나치게 호사스럽게 살았다. 한국 교회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부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을 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 친구와 함께 그분을 만났는데, 얘기를 끝내고 나올 때 같이 간 분을 크게 꾸

* 이 글은 1998년 10월 25일 기독교 연합 회관에서 열렸던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한 제언-목사 장로 임기제에 대하여"란 주제로 열렸던 복음주의 목회 연구원의 공청회에서 발제한 원고이다. 이 원고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고신대 신대원 도서관, 칼뱅시대 주네브 교회의 당회록 일부를 복사해 보내준 임경근 목사, 초고를 읽고 함께 토론해 준 유해무 교수께 감사드린다. 각주를 제외한 채 이 글은 본문만으로 『복음과 상황』 1998년 11월호에 게재된 적이 있다.

중하는 소리를 등뒤에서 들었다고 한다. 예배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인을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그 분은 몇 차례 했다고 한다. 그래도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보고는 그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제는 일본에 가서 한국 교회를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사람은 대체로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 점에서 좀 심한 편이고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심한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으로 겸손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낮고 천한 사람에게서라도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언제나 가르쳐야만 할 것처럼,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직접 또는 간접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목사와 장로가 참으로 주를 섬기듯이 교인들을 섬겼다면, 목사와 장로가 먼저 제자의 삶을 실천했다면, 목사와 장로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 몸부림쳤다면, 목사와 장로가 먼저 산 위에 우뚝 선 동네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다면 이처럼 한국 교회는 버림받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교회 문제를 모두 지도자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교인들의 신앙 형태도 사실은 큰 문제다. 말하기조차 진부하지만 ‘기복신앙’이 한국교인들의 신앙 형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복을 빌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

는 하나님' 이다. 삶의 한 순간 순간이,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 지탱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복 받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그 때부터는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동기와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복 받는 데 관심이 많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 형태 가운데 '이원론' 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고 교회와 세상은 무관하며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무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신앙생활은 대체로 교회생활로 한정되고 교회생활 잘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으로 오인된다. 교인 가운데서도 마치 '계급의 차이'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 형태 가운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세례 교인이 되면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남자는 장로가 되어야 마치 신앙에 성장과 진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 목사는 집사나 장로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자처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 로 해서 각각 받은 '은사' 대로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 교회 모습을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II. 한국 교회 직분과 관련된 문제점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종의 계급 상승이나 신분 상승인양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나는 목사와 장

로보다 그렇지 않은 주의 제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
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희생하고, 돈
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섬기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시고 비록 부
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이들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며 질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¹⁾ 하지만 직분자들이 언제나 직무를 충실하
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직무 수행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
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한국 교
회의 현실이다.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목사와 장로가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을 때 개(個)교회
로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구나 목사와 장로가 상호 적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교회가 분쟁에 휘
말리고, 분쟁에 가담했던 사람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분
열이 일어난다. 대한 예수교 측의 경우에는 목사의 계속 시무를 원
하지 않을 경우 교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조항이 있다.
헌법 제40조 목사의 사면 제2항 권고사면과 관련해서 “개체교회가
목사의 계속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
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한다”고 되어있고 장로의 ‘권고사임’
항목(제55조)에는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고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
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²⁾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1) 장 칼뱅, 『기독교 강요』, IV, 3, 1 참조.

2) 『헌법』 (1992년판)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194-6쪽.

거쳐 회의를 소집하며 어떤 방식으로 노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가끔 볼 수 있는 일부 목사와 장로의 나태와 안일, 독선과 전횡은 아무런 평가와 임기 제한 없이 종신토록 시무를 인정하는 목사 위임 제도와 장로 종신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 내 직무 수행에 대해서 교인들로부터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조금이라도 긴장해서 일한다면 현재보다는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구나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목사는 '주의 기름부음받은 중' 이란 이름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 로 자처하면서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목사, 장로, 집사 등 직분을 맡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사가, 또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진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정해진 임기와 그에 따른 평가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혹자는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무슨 임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종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임기를 정해두고 예컨대 교인들의 신임투표를 통한 평가를 거치는 것은 목사와 장로 자신의 임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셋째, 목사와 장로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고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수동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각자의 은사를 충분히 개발, 사용하지 못한다. 이 점은 은사 공동체여야 할 교회로서는 대단히 유감

스러운 일이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받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지 받기만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 일종의 섬김을 실천하는 셈이 된다.³⁾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자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엡4:11이하 참조). 교회 직분은 이들 은사를 이용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감(oikodome)에 목적이 있다(고전 14:5; 뎀 4:12, 16). 그러므로 한 목사가 종신토록 한 교회에 있는 것이나 한 장로가 종신토록 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교회 내의 잠재된 은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주의 교회에 더욱 합당하리라 생각한다. 이제 장로 임기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이 무엇인가 살펴 보자.

Ⅲ. 안수를 통한 임직, 임기제 도입의 걸림돌일 수 있는가?

장로 임기제는 한국 교회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번 장로는 끝까지 장로이며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나 '장로'라는 '직함'을 유지한다. 한국 교회에는 실제로 교회에서 장로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장로로 남아 있는 '휴무장로'와 '무임장로'가 있다. 휴무장로는 당회가 정한 윤번 시무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할 경우의 장로를 말하고 '무임장로'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

3) Hendrik Berkhof, *Christelijk Geloof* (Nijkerk: Callenbach, 19794), 421쪽 참조.

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⁴⁾ ‘안수로 임직받은’ 사람은 자신이 세움받은 교회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 갔거나 할 때도 직무 수행과 상관없이 여전히 장로로 남아있다. 실제적인 직무 수행보다 안수를 통한 임직 자체의 효력이 더 중시되고 있다. 한국의 장로직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안수가 과연 종신직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안수는 ‘사도적 계승’ 또는 어떤 신비한 ‘영적 능력’의 주입과는 거리가 멀다. 구약시대에는 축복을 할 때(창 48:14; 레9:22), 제물을 바칠 때(출 29:10; 레 1:4), 죄책을 물을 때(레 24:14), 레위인으로 세울 때(민 8:10), 직분을 맡길 때(민 27:18-23) 안수하였다. 예수님은 병고칠 때(마 8:15; 9:18, 막 5:23), 축복할 때(마 19:15) 안수하였지만 제자를 부르거나 파송할 때 안수한 적이 없다(마 10:1이하; 28:19). 맛디아, 바울, 바나바, 실라, 누가도 안수 없이 세움을 받았다. 신약 교회에서는 병고칠 때(행 9:12), 성령의 은사를 나눌 때(행 8:17-19), 집사를 세울 때(딤후전 4:14; 딤후1:6) 안수를 한 경우가 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를 받은 예가 나타나는데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보냄을 받으면서 안수를 받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딤후전 4:14).

여러 경우를 미루어볼 때 안수는 임직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어떠한 신비적, 주술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를 할 때 성령받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에 사는 시몬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였다(행 8:17-24). 안수를 통해 어떤 권능이나 어떤 ‘직분의 성질’이 타인에게 이양되는 것처럼

4) 『헌법』, 앞의 책, 196쪽 참조.

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⁵⁾ 안수는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당하게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은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진 자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겠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예식이다.⁶⁾ 칼뱅에 따르면 안수는 직분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commendare) ‘제물로 바치는’ (offere) 일을 상징하는 예식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외 어떤 ‘더 심오한 신비’가 깃들어 있지 않다.⁷⁾ 따라서 한번 안수 받았다고 해서 그 안수받음으로 인해 장로직의 종신적 의미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장로교와는 달리 대륙의 개혁 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은 장로와 집사 임직시에 안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⁸⁾

IV. 장로직의 회복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자. 장로직이 어떤 직분인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적 의미의 장로직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칼뱅의 개혁운동으로 주네브에서 최초로 회복되었다. 루터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직 회복에 힘을 다했다면 칼뱅은 고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 목사와 장로, 집사, 이 삼직을 회복하였다.⁹⁾

5) H. G. Schuetz, "Hand, Handauflegung", in: *Theologische Begriffslexikon zum Neuen Testament* (Wuppertal: Theologischer Verlag R. Brockhaus, 1971), 1권, 627-631쪽.

6)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30), IV, 365-367면 참조.

7) 칼뱅, 『기독교 강요』 IV, 19, 6 참조.

8) 허순길, 『개혁 교회의 목회와 생활』 (서울: 총회출판국, 1994), 74-76쪽 참조.

9) 물론 원래 칼뱅은 교회 직분으로 목사, 교사(신학교수), 장로, 집사, 이 네가지 직분을 생각했다. 그러나 뒤에는 세 가지 직분으로 확립되었다. 주 12참조.

칼뱅에 의해 회복된 장로직의 특징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감독(episkopos)과 장로(presbyteros)를 같은 직분으로 보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감독(주교)과 장로(사제)를 엄밀히 구별해서 감독(주교)을 장로(사제)에 대해 상위직으로 두었던 로마교 전통(트렌트공의회 이후)에 대한 반대가 여기에 담겨있다. 칼뱅에 따르면 감독이 곧 장로이고 장로가 곧 감독이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정신' 뿐만 아니라 '문자'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행 20:28; 약 5:4; 벰전 5:1-4). 칼뱅의 의도는 교회 직분, 그 가운데서도 감독과 장로 사이에 어떠한 직위의 상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같은 직무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 내의 특별한 신분 계급으로 이해된 '성직자'(clerus)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예로운 이름이다(벰전 5:3).¹⁰⁾ '성직자'와 '평신도'를 서로 맞서게 함으로써 위계질서를 교회 안에 도입하는 일을 칼뱅은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세례파들의 '민주적' 무질서를 원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으며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 교회의 수종자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칼뱅은 장로와 감독을 같은 직분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두가지 부류의 장로, 곧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고 보았다.¹¹⁾ 바로 이 전통에서 "목사도 장로다"라는 말이 나왔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한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¹²⁾ 주네브교회헌법은 복음을 전하고 성

10) 칼뱅, 「기독교 강요」 IV, 4, 9.

11) 칼뱅, 「기독교 강요」 IV, 11, 1 참조.

12) 설교자(목사)와 장로를 칼뱅이 구별한 것은 1541년 주네브교회헌법(Les Ordonnances Ecclesiastiques de l'Eglise de Genève)에 나타난다. 여기서 칼뱅은 교회의 네 직분으로 목사(pasteurs), 교수(docteurs), 장로(anciens), 집사(diacres)를 들고 있다(Calvini Opera, X, 15-30쪽).

례를 수종드는 일이 목사의 주임무라면 “각자의 생활을 관찰하고 만일 죄에 빠졌거나 규모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친절하게 권면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권징회에] 제출”해야 할 임무가 장로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³⁾ 치리 장로의 성경적 근거로 칼뱅은 1543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로마서 12장 8절(prohistamenoi)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kuberneseis)에서 찾고 있다.

셋째, 칼뱅이 시무했던 주네브 교회에서는 ‘치리하는 장로’와 집사는 한시적으로 시무하도록 하였다. 1541년 11월 20일 통과된 주네브교회헌법은 장로 선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시의회가 구성된 뒤, 장로들은 계속 시무 또는 교체 여부를 심사받도록 시정부에 출두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장로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주 그들을 교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¹⁴⁾ 이 헌법에 따르면 집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1년 임기로 되어 있다. 이 전통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 그대로 수용된다.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는 1571년 첫 총회였던 엠든 총회, 1578년 도르트레흐트 총회, 그리고 또다시 1581년 미들부르흐 총회에서 장로와 집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개교회 사정에 따라 짧게 또는 좀 더 길게 시무 기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만 해도 감독과 장로를 같은 직분으로 보면서도 장로의 주임무를 ‘복음 전하는 일과 성례를 수종드는 일’로 제한한 것으로 보아 그가 염두에 두었던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였다(C.O., I, 185-6). 1541년에 비로소 칼뱅은 ‘치리 장로’의 개념을 분명히 표현한다(C.O., X, 22쪽 참조) 좀 더 자세한 논의는 H. Bouwman, *Gereformeerde Kerkrecht* (Kampen: Kok, 1928), 1권 참조.; S. G. Huh, *Presbyter in Volle Rechten* (Groningen: De Vuurbaak, 1972), 121쪽 이하 참조.

13) C.O., I, 185-6쪽.

14)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eve au Temps de Calvin, Tome Premier 1546-1553*, J-F. Bergier (ed.)(Genève: Droz, 1964), 7쪽. “Et au bout de l’an, apres avoir esleu le Conseil, qu’ ilz se presentent la Seigneurie affin qu’ on regarde s’ ilz debvront estre continuez ou changez, combien qui ne seroit expedient de les changer souvent sans cause quant ilz se acquitteront de leur devoir fidellement.”

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재삼 확인하였다.¹⁵⁾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장로 사이 어떤 계급상의 상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다같이 동등한 장로와 감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이 개혁 교회 전통을 통해 변함 없이 계승되었다.¹⁶⁾

V. 개혁 교회 전통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로의 한시적 봉사

개혁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로의 한시적 시무에 관해 좀 더 살펴 보자. 우선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교회 직분을 한시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종신직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도 시대에는 장로와 집사가 종신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종신직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혁 교회 전통은 장로와 집사의 한시적 시무를 지지한다. 칼뱅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혁 교회 전통이 한시적 시무를 도입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현실적 고려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치리 장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로 직분을 오랫동안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일 한국 교회 장로처럼 당회에 참석하고 교회 부서를 맡아 관장하고 예배 중 공중기도를 맡는 일에 장로 직무가 국한되어 있다면 종신직으로 하더라도 생업이나 가정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장로 직무 수행을 어느 정도 무리 없이 해 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혁 교회 전통의 장로직은 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많은 임무를 부여한다. 개혁

15) F. L. Rutgers, *Kerkelijke Adviezen I* (Kampen: Kok, 1921), 229쪽 이하 참조.

16) Bouwman, 앞의 책, 600쪽.

교회 전통에 따르면 장로는 (1) 교회를 운영하고 권징을 시행할 뿐 아니라 (2) '감독'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 동료 장로와 목사를 감독하고 서로 권면하며 (3) 목사와 함께 성도를 심방하며 당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¹⁷⁾ 동료 장로들을 살펴보고 서로 권면하며 목사의 가르침을 검토, 숙고하는 일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좃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행 20: 28-31)라는 권면에 근거한다. 심방은 장로가 하는 일 가운데 시간과 정열을 가장 많이 쏟아야 할 부분이다. 생업을 가진 장로가 장로로서 제대로 교회를 섬기자면 임기 제한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현재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위시해서 여타 개혁 교회는 이 전통을 비교적 충실히 지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사와 장로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1581년 미들부르흐 총회에 질의된 것 가운데 장로와 집사의 종신직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때 총회는 한시직을 다시 확인하였다. 만일 장로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을 경우 장로가 교회 정치를 전횡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당회원의 지지를 받는 목사가 전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장로의 한시적 시무를 교회 정치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치리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 내에 감추어진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였다. 장로직을 만일 임기 없이 종신으로 할 경우,

17) Bouwman, 앞의 책, 548쪽 이하 참조.

교회 내에서 장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갖춘 사람이 있는데도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 장로를 12명 세웠을 경우 2년이나 3년이 지난 후 1/3이 물러나고 새로운 회원을 1/3 선출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을 개발해 낼 수가 있다. 개혁 교회 전통은 이렇게 3년 내지 4년을 장로로 시무한 다음, 장로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장로'라는 직함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다시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¹⁸⁾

VI. 장로 임기제를 도입할 때 한국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유익

지금까지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 임기제를 도입하는 일이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임기제 도입은 우선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직분과 관련해서 임기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도 아님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임기제 보다는 올바른 직분 개념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임기제는 왜곡된 직분 개념을 바로잡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임기제 도입에 관해서 얼마든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만일 임기제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개혁 교회 전통대로 3년 또는 4년 임기제를 택하는가, 아니면 예컨대 4년이나 5년 또는 6년을 시무하고 1년 안식년을 가진 다음 신임

18) 장로의 안수와 임직, 장로의 봉사 임기와 직무 등 현재 개혁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로 제도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허순길, 앞의 책, 1994, 69-95쪽 참조.

투표를 통해 다시 시무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만일 장로 임기제를 도입한다면 개혁 교회 전통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장로 종신직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후자의 대안이 좀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임기제 도입이 교회에 유익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모을 수 있을 때 가능함은 두 말할 필요 없다.

장로 임기제 도입은 첫째, 장로가 어떤 ‘신분’ 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¹⁹⁾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섬김(diakonia)의 직분이란 사실은 집사(diakonos)직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도 해당된다. 신약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 있는 것이다. 직분자가 갖는 권능(potestas)도 섬기는 자로서 주어진 권능일 뿐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대접받기 위한 권능이 아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하신 것처럼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섬겨야 한다. 교회 치리는 곧 성도를 섬김이다. 여기서 섬기는 자의 힘이 나온다. “직분자의 권위는 섬김 자체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 직분 개념을 매우 분명하게 요약해 준다.²⁰⁾ 그럼에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는 섬기는 자로서보다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서로 먼저 대접받고자 한다. 목사 임기제와 더불어 장로 임기제의 도입은 진정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자 상(像)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섬김으로서 직분

19) 루터와 칼뱅의 개혁은 ‘신분’의 직분을 ‘섬김’의 직분으로 바꾸어 놓았다. 자세한 논의로는 C. Trimp, *Ministerium, Een introductie in de reformatorische leer van het ambt* (Groningen: De Vuurbaak, 1982), 19-79; 80-137쪽 참조.

20) 유해무, 『개혁교회학』(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568쪽.

개념은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목사와 장로의 대결구조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목사와 장로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감독과 하나님의 교회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감독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로 임기제 도입은 장로 직무 수행을 정상화하는 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았다. 만일 임기제를 도입한다면 평가제도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평가제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장로의 임기중 직무 수행을 성실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가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교수재임용제도가 재단의 눈에 벗어난 교수를 해임하는 일에 악용되듯이, 장로 임기제도 목사에 의해 또는 일부 교인과 장로들에 의해 오용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교수재임용제도와 그에 따른 교수평가제도는 안일하게, 아무런 자극없이 교수로서 '신분'을 지켜 온 교수에게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에 충실하도록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장로 임기제의 도입도 대접받고 힘있는 장로보다 참된 종으로서 성도들을 돌보며 신앙과 삶을 감독하고 살피며 도와주고 기도하며 권면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장로를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장로 임기제의 도입은 교회 안에 잠재해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한된 수의 장로가 장기간 한 교회를 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로서 일정한 임기 안에서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에 훨씬 더 유익이 된다. 임기를 정해 두고 여러 사람이 차례로 장로로 섬긴다면 교회 내의 은사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은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가르칠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직분에

있을 수 없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책할 수 없는 사람이 치리하는 장로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끈궁중에 있는 교우를 찾아내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 다르다. 실제로 직분에 부합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로를 세우는 경우만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로서 은사와 능력보다는 사회적 지위, 재정 능력, 학벌 등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장로 임기제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